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5/6월호
2016년



한인회소식

사진: 오늘의 밴델리어 모뉴먼트 유적지와 옛 방문객센터를 그린 기념우표(관련기사 :7페이지)

한인회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뉴멕시코 한인여러분,
어느덧 오월의 문턱에 들어왔네요.
하지만 바람이 엄청 부는 달이기도
하죠. 알려지도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줄 압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오월은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 스승님들께 감사드리는
달이기도 하죠. 또한 자녀분들
졸업식도 있구요. 저희 한인회에서 5
월달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 1일(일) 에 있었던 아시아 페스티벌은 안타깝게도
날씨관계로 당일 갑자기 outdoor에서 indoor로 바뀌지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고 기대한 만큼 방문자가 훨씬 저조한 관계였지만,
그래도 취소되지 않고 각 cultural group들의 도움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뉴멕시코 한인회에선 한국학교와
김치페스티벌 홍보에 중점을 두며 임원들의 봉사가 있었고,
이희정씨의 부채춤과 갈춤 공연이 있었습니다.

-5월 5일(목), 한인회 정치력 신장 간담회가 저녁 6시
저녁식사와 함께 한인회관에서 활기찬 분위기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종한 영사님과 현재 정치권에 계신 두 감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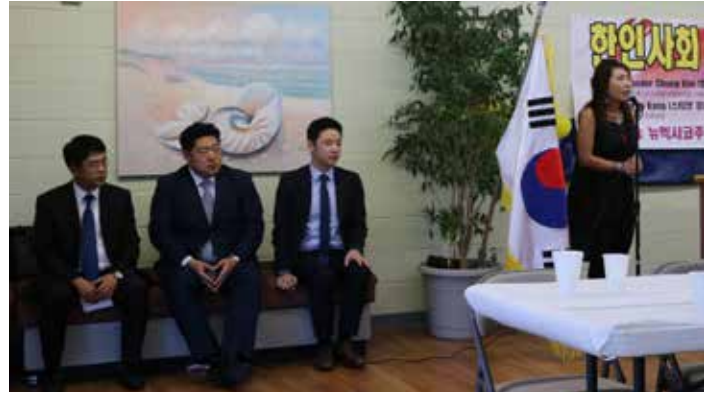
2016년 5/6월호 내용

- 한인회소식 | 한인회장 인사 | 김영신 : 1
- 한인회소식 | 어버이회에서 드리는 감사 | 윤태자 : 3
- 한국학교소식 | 가을학기학생모집/한국학교운영상황 | 김정현 : 4
- 한인회소식 | 간담회에 열띤 관심 | 이은주 : 5
- 취미/여행 | 미국우표에 소개된 뉴멕시코국립공원 : 7
- 수필 | 첫 데이트 | 이정길 : 8
- 인터뷰 | 꿈 꾸는 사람이 하늘을 다 가질수 있어요 | 하은선 : 9
- 생활정보 | 미국의 대통령 선출과정 : 11
- 생활정보 | 행복한 미국생활(8) : 13
- 지역사회소식 | Park Fine Art 제7회 인터내셔널 투어 쇼 : 15
- 미술시리즈 |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락 | 심유진 : 16
- 칼럼 | 지혜로운 크리스천 | 김기천 : 17
- 기행문 | 워싱턴 DC여행 | 박광종 : 17
- 지역사회소식 | 사회 홍보부 주최 요리강습 세미나 : 18
- 광고 | 뉴멕시코 한인교회안내 : 19
- 광고 | 뉴멕시코 한인업소 : 20-21

한인회소식

(알렉산더 김, 스티브 강)을 모시고 경형담과 함께 많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차세대를 위주로 하는 모임으로 50명의 참가자를 기대했지만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궁금했던 질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11일(수), 12시에 항상 연중행사로 있는어버이날 피크닉이 아버지 회장 윤태자님 댁에서 가집니다. 많은 아버님들 참석하셔서 맛있는 점심, 그리고 게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윤태자님께 연락 주십시오(234-4306) ■



강사 소개를 하는 김영신 한인회장



회장, 부회장과 LA 에서 오신 스티브강, 김종한 영사, 알렉산더김



한인회관에서 가진 간담회



아시아인 페스티벌에서 이희정씨의 부채춤과 칼춤, 일본팀의 춤과 북 공연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	---

어버이회에서 드리는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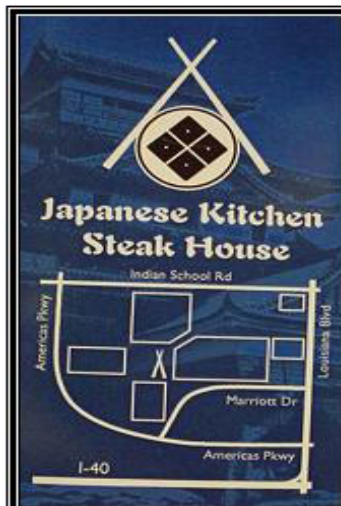
안녕 하세요. 한인회 어버이회를 책임지고 있는지도 일년 반이 되어 갑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도와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보고할겸 감사의 편지를 이 지면을 통해서 할까 합니다. 현재 어버이회는 총 32명의 회원과 회장을 비롯하여 6명의 봉사자들이 상호협조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베키안씨가 회계를 맡아 하시다가 텍사스로 이사 가시게 되어 새로이 윤진옥씨가 맡아 인수인계가 끝나고 새로운 활력소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베키씨께 감사드리고 봉사로 맺은 인연은 나중을 기약해 봅니다. 부엌에서 음식준비와 설것이로 임원들이 수고하고 새로운 신참 봉사자 박애나씨의 수고와 이쁜 미소로 한결 따스한 사랑을 만끽합니다. 매달 첫째 수요일은 김미경씨가 번역 통역등 봉사해 주시고 정지혜 한글학교 선생님은 한달에 두번 오셔서 점심전 30분씩 맨손체조를 지도해 주시며 어른들의 건강을 맡아 주시고 있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청소를 도우시는 이덕녀 권사님. 운전으로 어르신들 라이드 해주시는 박연복씨. 이쁘고 맛깔스러운 떡을 만들어 오셔서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시는 감순옥씨. 무엇을 도울까 둘러 보시고는 식탁을 차리시는 조은순 신기춘씨. 그외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봉사로 어버이회가 순조로운 향해를 하고

윤태자

어버이회 회장



있습니다. 올해들어 정미라.김영신회장님. A-1 Market. Kim,s Market. 주님의 교회, 감리 교회. 코윈. 카톨릭 공동체에서 식사를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정경숙씨 가족, 김경숙, 최진, 최영애, 조규자,정풍자, 김현지께도 감사 드립니다. 6월 첫째주 예정되어 있는 야유회는 김스 마켓과 문상귀씨가 운전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점심은 현용규 목사님 내외분께서 준비해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뒤돌아 보면 사람이 없을때는 사람을 붙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 할때는 물질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은혜가 어버이회에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도와 주시는 손길이 있기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고 밝은 희망이 있는곳이라는 것을 봉사와 후원해 주시는 선한 마음에서 느낄수 있었기에 행복하게 나머지 향해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뉴멕시코 한국학교 2016년도 가을학기 학생 모집

1. 아동반 (토요일)

수업기간: 8월 27일 (토) ~ 12월 3일 (토)

9:15 a.m.~12:10 p.m.

과목: 한국어 읽기/쓰기/말하기/듣기 및 미술, 고전,
과학, 음악 특별활동

2. 성인반 (목요일 혹은 토요일 선택)

수업기간: 8월 25일 (목) ~ 12월 1일 (목)

5:30pm-7:30pm

8월 27일 (토) ~ 12월 3일 (토)

9:15 a.m.~12:10 p.m.

과목: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

- 학교 위치: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문의: 김정현 교장 nmkoreanlanguage@gmail.com,
814-777-9757

- 수업료: 135불 (5월 7일까지 등록), 150불 (5월 7일 이후
등록)

- 등록은 이메일 또는 학교에서 합니다. 등록하실 때 이름,
나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수업날짜 등을 알려주세요.

Fall 2016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1. Children Classes (Saturday)

Semester period: Saturday 9:15 a.m.~12:10 p.m.

from Aug. 27th to Dec. 3rd

Subjects: Korean Language -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cial courses - Art, Korean History &
Culture, Science, Music

2. Adult Classes (Thursday or Saturday)

Semester period: Thursday 5:30 p.m. ~ 7:30pm,

from Aug 25th. to Dec. 1st.

Saturday 9:15 a.m.~12:10 p.m.

from Aug. 27th to Dec. 3rd

Subject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School Location: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Contact: Junghyun Kim, Principal of the Korean
Language School

nmkoreanlanguage@gmail.com, (814) 777-9757

- Tuition: \$135 (Early bird registration by May 7th),
\$150 (After May 7)

- Registration by email or on site. Please include name,
age, phone number, email, class day, and indicate
past experience if any.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운영상황

김정현

뉴멕시코한국학교 교장

한국학교는 김정현 신임교장 취임 이후

4월부터 교사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교사회의는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며,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학교 수업에 관한 만족도, 학생의
관심사, 좀 더 보충되었으면 하는 특별활동, 한국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한국학교는 설문조사 답변 내용들을 잘
수렴하여 더 나은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 홍보를 위해 5월 1일 아시안 페스티벌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김정현 교장은 앨버커키의 주요 교육인사들을
만나 학교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기존의 한국학교 주요
멤버들, 특히 신미경 전 교장선생님을 만나 앞으로의 학생관리와
수업관련하여 토론했습니다.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들께 한국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대한 조언 혹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정현 교장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이나 814-
777-9757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



한국학교 교사회의



아시안 페스티벌에서 한국학교 소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위한 간담회에 열띤 관심

이은주
아리조나 타임즈 기자

LA 총영사관 주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경험 및 성공사례 공유
확산을 위한 간담회가 5월 5
일(목) 오후 6시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6시 이석중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LA

총영사관에서 마련하는 만찬이 한
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7시부터 김영신
한인회장의 인사로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LA 총영사관에서
동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 김종한(49) 영사는 2014년
가을 앨버커키 메모리얼 파크에서 열린 6.25 참전 용사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식 참석에 이어 한인회 김치 축제에 참석한 적이
있으며 앨버커키 한인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다고 인사했다.
이어 두 강사를 소개하고 미국 커뮤니티 내에서 단합을 통해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만큼 정치력 신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알렉산더 김(Alexander C. Kim)

먼저 알렉산더 김(43) 씨의 강의가
있었다. 그는 데이빗 류 LA 시의원
(4지구) 사무실에서 수석고문
보좌관을 맡고 있다. 또한, 2011
년부터 4년 동안 주 검안위원회
커미셔너로도 활동했으며, 2004
년부터 6년 동안은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제임스 한 당시



LA 시장의 보좌관으로 근무했었다. 김 보좌관은 민간분야에서도
남가주 가스 컴퍼니의 각종 대정부 관계 업무를 총괄하기도
한 재원이다. 뉴멕시코에 처음 방문했고 하늘이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은 얼굴로 인사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능통한 영어, 제2외국어가 스페인어이고, 강의 중간중간
한국말로 사용해 친근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작년 5월, 미주 한인 이민 112년 역사상 최초로 한인 1.5
세로 LA 시의원에 당선된 데이비드 류(당시 39세)의 수석
고문 보좌관과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의 보좌관 경험을
바탕으로 코리언 아메리칸 특유의 성실과 성장을 통한 정치력
신장에 대해 강의했다. LA 제4지구 시의원 결선투표에서 이민
1.5세대인 데이비드 류 후보가 11,200여 표를 차지해 현직
시장과 시의원 등의 지지를 받는 캐롤린 램프 후보를 1,600여
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4지구는
백인이 인구의 62% 유권자의 75%이고, 아시안 인구는 16.6,
등록된 아시안 유권자는 7.4%뿐이다. 시의원은 임기 4년, 전체
15명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원의장까지 지내고 엘에이
시의회로 내려올 정도로 막강하다. 연봉이 거의 18만 달러에
이른다.

데이빗 류 후보는 6살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와서 서울대 출신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가 유에스 아미에서 일할 때 부모의 영어 통역도 했고, 700여 sqf 작은 아파트먼트에서 동생들과 부모, 할머니, 3대가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자랐다. UCLA를 졸업하고 한미연합회 등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와 수퍼바이저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알렉산더는 승리의 비결을 “한인들이 중심이 된 정치 후원금과 자원봉사, 데이비드 류의 투명한 메시지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성공이다. 데이비드 류는 한국말도 잘하며 후보 중 가장 어린 39세로 나오는 친구다. 우리 부모님과 데이비드 부모님 또 초창기 이민 세대들은 다 영어 못하면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해 어려운 일 밖에 못했다.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부모 세대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다 보니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가 인기 있었지만, 현재는 달라져야 한다.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다르다. 미국은 나이가 젊든 많은 자신의 소견을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고 투표가 아주 중요하다. 데이비드 류는 코리언 아메리칸 시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을 깨닫고 시의원에 도전해 성공을 거두었다. 첫 한인 시의원이 나오길 염원한 한인 커뮤니티의 승리이다. 많은 한인이 사업에 성공하고 경제력이 높다 보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인 타운을 방문해 ‘우리 데이비드 류’라 하며 친근감을 드러낼 정도로 코리언 아메리칸의 위상이 높아졌다.” 코리언 아메리칸의 성실과 끈기로 아널드 슈워제네거 보좌관으로 일하던 경험과 시장 보좌관으로 일한 경험도 나누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한인 2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했다. “3, 4년 해보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이력과 인맥이 풍부해진다. 이번에 뉴멕시코 교민들과 새로운 가족이 돼서 기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주 연락하고, 엘에이에 오면 시청을 방문하면 특별히 프라이빗 투어를 해주겠다”고 해 교민들과 웃음을 나누었다.

스티브 강 (Steve S. Kang)

스티브 강(30) 한미연합회(KAC) 사무차장은 아이비리그인 컬럼비아 대학을 나와 런던 정경대학에서 정치 미디어 분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데이비드 류 LA 시의원 선거 캠페인 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 오다 한미연합회에 합류한 재원이다. 전 강의를 한국어로 소화할 만큼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다. 강의에 앞서 그는 초청해 준 김영사와 뉴멕시코 한인회장 및 임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처음 방문한 뉴멕시코의 깨끗하고 조용함에 반했고 다음에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강의를 통해 한미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하는 일, 거쳐 간 인물, 엘에이 한인의 현재 정치적 입지, 뉴멕시코 한인 사회가 작은 커뮤니티지만 정치력 신장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점, 인턴십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한미연합회(KAC)는 1983년에 설립된 비영리, 비정파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단체이다. 목표는 공동체 옹호, 분쟁 해결과 이민족 간의 대화, 차세대 육성에 관한 리더십 개발과 유권자 등록, 시민 참여에 있다. KAC의 역사에서 주요 전환점이 된 것 중의 하나가 1992년 LA 폭동 때였다. 당시 KAC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황폐해진 커뮤니티의 고통을 주류 언론, 공직자, 정부 기구에 대변했다. 주요 업적은 수년 동안 커뮤니티의 권리 획득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개발해 왔다. 33년간의 흐름 속에서 KAC는 4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 획득과 유권자 등록을 하는 데 이바지했다. 1988년 Black Korean Alliance를 공동 설립하고, 1997년에는 분쟁을 조정하고 인종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4.29 센터를 설립했으며, 1992년 LA 폭동 후 피해자 구호 활동을 조정 관리했다. 이중언어로 된 유권자 등록 용지와 샘플 투표지 도입하도록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설득했으며, 미국 정치적 절차에 대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 그리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적 이슈를 제기했다. 미 전역 LA, 델러스, 애틀랜타 등 10개 대도시 지부 중 엘에이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설립 후 33년 동안 유권자 캠페인, 투표에 대한 교육을 주로 했는데 특히 올해는 대선에서 투표를 원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획득에 관한 문의가 많다고 한다. KAC는 설립 이후 많은 차세대 리더들이 거쳐 간 단체이다.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28세 때 근무했고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남가주 최초의 한인 여성 주 하원의원으로 지난 2014년 입성했던 영 김 의원(65지구) 등이 거쳐 갔다. 정치뿐 아니라 애플, 삼성의 판사도 이사로 활동한 적 있다. 비록 한인 커뮤니티는 작지만 작은 커뮤니티일수록 더욱더 정치력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스티브 강은 데이비드 류의 아시안 유권자 담당이었다. LA는 미국에서 규모나 인구 면에 있어서 두 번째의 도시이므로 시의원의 직위는 연방하원 급으로 볼 수 있다. 4지구는 샌프란시스코 규모의 큰 지역이다. 시의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시장 급이라고도 할 수 있다. LA 부유층인 할리우드 등을 포함한 백인 중심 지역이다. 정치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도 후원 행사를 많이 하는 지역이다. 꾸준히 백인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어오다가 한인 2세가 기적적으로 당선된 배경은 한인들의 결집력을 들었다. 대선 이외에는 대체로 10~20% 정도의 낮은 투표율에서 10만명 가량의 유권자 중 5,500여 명의 한 커뮤니티에서 한 후보를 지지하고 후원할 경우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다. 한 투표가 중요하다. 한인들이 투표 참여를 많이 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시안 커뮤니티 중에서도 한인 투표율이 가장 낮은 아쉬움이 있다. 우편 투표로도 참가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분야는 달라도 커뮤니티 참여, 유권자 등록, 공동체에서 단합돼 한목소리로 미국정치에 참여한다면 한인커뮤니티가 큰 주목을 받고 한인 정치력 신장이 커질 것으로 본다. 어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이 최초로 한인 타운을 방문했다. 한인 커뮤니티가 정치부문에 있어 발휘할 영향력이 크지 않고 라티노나 흑인보다 투표수가 낮아도 한인들의 지역에서의 성공과 정치 후원에 그만큼 한인 정치력이 신장된 보기를 들어 주었다. 특히 뉴멕시코 교민들에게 많은 질문과 관심을 받은 부분은 인턴십 프로그램이었다. 두 강사는 뉴멕시코 한인의 자녀들이 많이 참가하길 당부했다.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남가주에서 5일간 열리는 전국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와 남가주에서 가장

미국 우표에 소개된 뉴멕시코 국립공원

뉴멕시코에 있는 공원을 소개하는 미국 우표 Forever Stamp 가 두장 새로 나오게 된다. 미국의 국립공원이 생긴지 100년이 된것을 기념하며 미국 우정청(US Postal Service)에서 16장의 센테니얼(Centennial) 기념우표를 만들게 됐다. 미국내의 여러 우수한 국립공원중에서 16곳의 그림 또는 사진으로 만든 기념우표 중에 뉴멕시코에 있는 두개의 공원이 기념 우표에 선정됐다.

그중 하나는 로스 알라모스 근처에 있는 밴델리어 내셔널 모뉴먼트를 소개하는 우표이다. 이 우표에 올려진 그림은 밴델리어 내셔널 모뉴먼트 방문객센터를 파스텔로 그린 그림인데 프리홀리스 케년을 배경으로한 어도비건물 방문객센터를 그린 그림이다. 화가는 독일 출신 헬무트 나우머(Helmuth Naumer 1907-1990)인데 그는 1932년 산타페로 이주하여 화가로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 그가 그린 그림이 올려진 것이다. 두번째 우표는 칼스벳 케번 국립공원을 소개하는 사진이다.

동굴안의 종유석이 다채로운 색깔의 조명에 비쳐진 사진이다.



리처드맥기르(Richard McGuire) 사진작가의 작품이다.

국립공원 센테니얼(Centennial) 기념 우표는 6월 2일 뉴욕 세계 우표쇼에서 First-Day-of-Issue Ceremony를 가짐과 동시에 전국 우편국에서 사용하게 될것 이라고 한다. 뉴욕 세계 우표쇼(World Stamp Show NY-2016)는 10년에 한번 열리는 쇼로서 5월28일부터 시작해서 8일간 열리는 이번 쇼에 관객은 25만에서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는 세계적인 우표전람회이다. ■

오래되고 성공적인 한인 공동체의 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8주 동안 12명의 인턴이 주 4일 풀타임 인턴 근무를 하고 1일은 한미연합회 사무실에서 훈련한다.

최근 Los Angeles 지부가 2016 봄 학기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했다. 인턴십 배치 예정 분야는 SNS 관리 (social media), PR 마케팅, 정부부처 (grant writer),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행정보좌 등이다. 지원 자격은 현재 2년제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 최소 3.0GPA를 보유, 한인타운에 있는 사무실로 통근 시 지장이 없을 것, 영어 능통(스페인어 사용자 우대)이다. 지원 방법은 희망 분야를 적은 이력서와 Cover Letter를 info@kacla.org 로 보내면 된다.

한미연합회 하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SCIP) 지원자들은 정부 및 정치기관, 비영리단체, 기업체, 언론계 등 4가지 관심 분야의 순위를 제시하면 그에 따라 배정을 받게 된다. 존 치엥 캘리포니아 주 재무장관 사무실, 바바라 박서 연방상원의원,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미셸 박 스틸 사무실 등 정치인 사무실을 비롯해 주류 언론인 KTLA, FOX, KCBS 등이 인턴십 제공 파트너로 참여한 바가 있다.

박광종 코원 회장, 이경화 장로, 이옥주 권사, 오영 사모, 이옥주 이사, 김영신 회장은 주로 차세대대를 위한 인턴십에 대해 질문했다. 인턴십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경비 지원이나 베네핏은 없지만 관련된 장학금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이 꾸준히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info@kacla.org이나 213-365-5999

차세대대를 위한 동포간담회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마지막에 주최측에서 참석한 교민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없냐고 했을 때 박광종 코원 회장이 “we are so proud of you”라고 했다. 그것은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동포 모두의 마음이었지 않을까?

〈아리조나 타임즈 5월11일자 글:이은주 기자〉 ■



첫 데이트

얼부풀었던 흙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햇볕이 따갑게 느껴지면 농부들은 한 해의 준비로 연장을 쟁긴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죽은 듯 숨어있던 풀들이 새싹을 밀어올리고, 앙상하게 말랐던 나뭇가지에 맺혔던 잎눈과 꽃눈이 터져 완연한 봄을 알려준다. 만물이 아연 생기를 되찾아 세상이 온통 봄빛으로 가득해진다.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찾아 들길을 걷노라면 공중으로 높이 날아 오르며 재잘대는 종달새들의 고운 노래소리에 마음이 들뜬다. 멀리 논 가득 자운영이 꽃피어 있으면 밭길이 저절로 그리로 향한다. 붉은 빛과 보랏빛의 꽃밭을 가까이 가보지 않고는 도저히 배기질 못했던 것이다. 비료나 사료로 쓰며, 어린 잎과 줄기는 먹기도 했지만 자운영 꽃밭은 아름답기도 하다. 어릴 때의 봄이었다.



대학의 첫 해는 폭넓은 교양의 습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이다. 일생 동안 이례적으로 마음껏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두 시기 중의 하나, 생애의 봄이다.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2학년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내가 들어간 농과대학 수의학과는 그때 전남대학교 구내에서 멀리 떨어진 광주시 동명동의 조그마한 2층 건물에 있었다. 교양과목으로 독일어 법학 종교학까지 두루 섭렵한 뒤에 접한, 동물의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등 전공과목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아주 어수선했지만, 한 학년이 30명 내외였던 우리는 바람을 타지않고 조용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하나를 총장로 4가에 있는 부래옥에서 만나 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총장로는 당시 많은 사람이 들끓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걱정이 없는 인기 있고 사랑받는 유행의 거리였고, 부래옥은 단팥빵과 크림빵으로 이름을 날리는 제과점이었다. 여름에는 남자애들에게, 팔이나 우유를 넣고 꼬챙이를 끼어 열린 얼음과자 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부래옥 아이스케키!' 라고 외치며 팔게 했다. 좀 비싸기는 했지만 빵은 맛이 아주 좋아서 얼음과자와 함께 꽤 유명했다. 우리의 얘기가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거의 끝나가고 있을 즈음, 카운터에서 가벼운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계산하면서 듣자니, 빵값 때문에 여고생 몇과 카운터 아가씨 사이에 벌어진 실랑이이었다. 많은 돈도 아니어서 내가 선뜻 내주고 밖으로 나왔다.

뒤에서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그 여학생들 중의 하나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았으니, 그 돈은 꼭 갚아야한다는 것이었다. 자기의 집이 서석동에 있다면서, 함께 가서 꼭 받아가야 한다고 우겼다. 오후의 강의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려던 참이었고, 서석동은 학교 근처였다. 그쪽의 얘기가 터무니 없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 길이기도 해서, 멧쩍은 느낌이 들었지만 함께 걸으면서 얘기해보자고 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광주여고 3학년으로, 이름은 안선영이라고 했다.

잠깐 기다리면 된다면서 들어간 뒤에, 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였다. 고맙다는 인사에 이어 한사코 잠깐 들어왔다 가라는 바람에 문안으로 들어섰다. 차 한 잔은 마시고 가야 한다고 붙들면서 꺼낸 얘기가 내 신상을 묻는 것부터 선영이의 얘기며 우체국에 근무하는 그녀의 아버지께 관한 얘기까지 이어졌고, 외동딸인 선영이가 홀로 쓸쓸함을 느끼고는 하니 서로 연락하며 지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선뜻 연락처까지 남기고 나왔다.

다음부터의 만남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공부하는 얘기와 친구들에 관한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주고 받으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다. 선영이는 상대방의 말에 귀기울일 줄 아는 총명한 학생이어서 말도 잘 통했다. 귀여운 얼굴에 아담한 데도 있었다. 나는 그때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한 노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 실험실을 지키느라 바빠기도 했지만, 만나면 마냥 즐거워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다. 이성과의 처음 만남이 활력소가 되어 공부에 대한 의욕도 더 대단해 지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학생 생활을 즐기던 중, 하루는 어떤 이가 나를 찾아왔다는 전갈을 받았다. 행정실에 가 보니 중년신사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인가 묻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짜고짜 호통을 친다.

“선영이 지금 어디 있지? 부모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공부밖에 모르던 애가 네놈을 만난 뒤부터 들뜨더니 드디어 집을 나갔다. 당장 찾아서 데려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기가 하도 막혀 말을 못하고 끄끙대다 깨어 보니 봄날의 긴 꿈이었다. ■

“꿈꾸는 사람이 하늘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뉴멕시코 한인이었던 켈리김 - 여성 파일럿

하은선 기자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꿈을 향해 날아 오르세요. 눈부시도록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열정만 있으면 더 높이 날아 오를 수 있었요”

한인 여성 최초의 미국 항공사 기장, 알래스카 에어라인 파일럿인 켈리 김 네블(51)씨는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품으라고 역설한다. 세상과 자신 안에 있는 편견을 뚫고 그가 서른다섯에 이룬 조종사의 꿈은 하늘을 품은 느낌이었다. 유나이티드 항공 승무원으로 시작해 파일럿이 된 그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천직이라고 했다.

한 달을 기다려 쉬는 날 인터뷰 약속을 했는데 김 기장은 파일럿 제복차림으로 나타났다. 알래스카 항공그룹의 버진 아메리카 인수 발표일이었는데 새벽 3시께 ‘혹시 오늘 운항이 가능한지’ 묻는 연락을 받았다는 그는 “집(포틀랜드)으로 돌아가는 길은 비행기를 몰고 가게 되었다”고 되레 기뻐했다.

다음은 켈리 김 네블 기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한인 여성 파일럿은 처음 만나다

▶알래스카 항공에 여성 파일럿이 45명 정도 있는데 한인여성 파일럿은 혼자서 알고 있다. 미국여성기장협회의 이사로 2년 일했는데 미국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여성 조종사 1,700여명이 등록돼 있더라. 비행기 조종은 여성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간주하지만 1929년 99명의 여성 파일럿이 창설한 국제여성조종사협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Pilots)가 주창하듯이 파일럿은 꿈꾸는 자들의 것이다.

-소수계 여성으로 미국 5위 항공사 기장에 올랐는데

▶9.11테러 이후 아무리 실력 있는 파일럿이라도 메이저 에어라인 진출은 힘들어졌다.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파일럿 절반이 여기까지 오면 다행이다. 파일럿 세계는 백인 남성 위주여서 아시안 남성 파일럿을 만나기도 힘들다. 내 경우는 지역 항공사 파일럿 근무 4년과 비행교관(Chief Flying Instructor) 경력이 인정되어 2006년 알래스카 항공에 입사했다.

-어려서 꿈이 파일럿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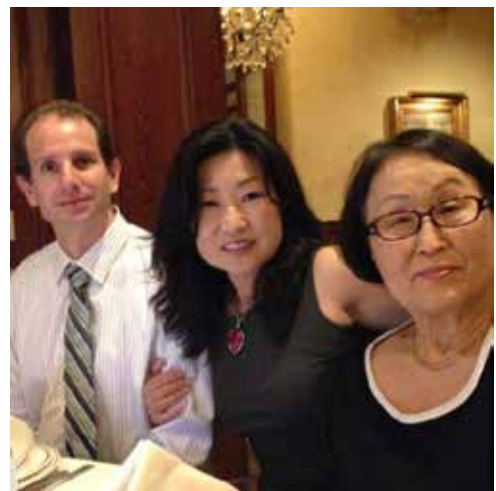
▶여자로서 파일럿은 꿈도 꾸지 못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뉴멕시코로 이민을 와 뉴멕시코 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유나이티드 항공 승무원이 됐다. 비행을 다니면서 보니 당시 유나이티드에서 알고 지낸 여성 파일럿이 4~5명 있었다. 여군 출신 아니면 아버지가 파일럿이었는데 그 중 흑인 여성 파일럿은 빈민가에서 자라 자수성가한 경우였다. 파일럿이 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 나랑 비슷한 처지라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 목표를 정했다.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한인 여성 파일럿인 켈리 김 기장이 기내 조종실에 앉아 웃음 짓고 있다.

-남편도 기장이다. 가족 소개를 하면

▶맞다. 덴버에 있는 항공대학을 다니면서 남편(로버트 네블)을 만났고 결혼한 지 5년 됐다. 같은 일을 하니 서로에 대한 이해도 쉽고 의지가 많이 된다. 어머니는 올해 81세인데 이화여대 출신의 약사로 은퇴해서 텍사스주 엘파소에 사신다. 큰언니는 뉴멕시코 라스크루시스 메모리얼 병원 랩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남동생이



로버트 네블과 켈리와 김순자집사



김순자 집사와 아드님 (김규호)

엔지니어, 작은 언니가 정신병원 심리치료사다. 오픈 마인드를 강조한 어머니 덕분에 가족 모두가 꿈을 좇아 살고 있다.

-여객기 조종사가 되는 길은

▶여객기 조종은 비행만 하는 게 아니기에 적성이 중요하다. 융통성도 필요하고 문제해결사 기질은 플러스 요인이다. 물론 연방항공청(FAA)이 인정하는 항공학과의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메트로폴리탄 스테이트 칼리지 오브 덴버에서 항공우주과학을 전공했다. 4년 학교를 다니면서 잠 한숨 못 잤다. 비행시간을 채우고 파일럿 시험에 합격해 미국 중부의 지역 항공사(Great Lakes Airlines)의 조종사로 출발, 캡틴이 되고 체크 에어맨겸 강사를 지냈다.

-항공사 기장이면 대우가 좋을 것 같다

▶메이저 항공사의 경우 중간급 파일럿이 되면 월 85~90시간 비행을 하고 시간당 150~220달러를 받는다. 첫째 주 금요일에 다음 달 운항일정이 공고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노선을 선택해 탑5 비드(bid)를 한다. 최소한 15일 전에는 다음 달 스케줄이 정해진다. 한 달에 절반은 쉬는 날이라 개인적인 시간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연 1회 교육이 있고 새로운 파일럿이 들어오면 멘토 역할도 한다.

-알래스카 항공은 고객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알래스카 항공처럼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회사가 드물다.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먼저 인사하고 상대방을 우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으니 당연히 승객 만족도가 높다. 또 직원들의 봉사활동도 적극 권장해서 개인이 10달러 기부를 하면 회사가 봉사단체에 10달러를 매칭한다. 또, 버진 아메리카 인수로 워싱턴 DC, 뉴욕 등 동부노선 진출 및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국제선 연결편 증가로 고객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파일럿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민생활에서는 '멘토'가 정말 중요하다. '비행기 조종은 여성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젊은 여성들이 파일럿을 꿈꾸게 하고 싶다. 한인은 물론 아시안 여성들은 파일럿을 멀게만 생각하는데 안타깝다. 이제는 여성들이 세상과 자신 안에 있는 편견을 뚫고 날아올라야 한다. 하늘을 품는다는 것 멋지지 않은가. 파일럿을 꿈꾸는 여대생, 파일럿의 꿈을 딸에게 심어주고 싶은 부모를 진정으로 응원한다. 2016-04-11 (월) <하은선 기자>

<광야의 소리 편집부의 보충 설명>

먼저 위의 인터뷰기사 전제허가를 해주신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켈리 김 네벨 (Kelly Kim Knebel)기장은 알버커키에서 하이랜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UNM에 진학했던 이고장 출신 교민의 한사람 이었습니다. 켈리김의 어머니 김순자 집사님은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의 초창기 시절에 교회 성가대 소프라노 파트에서 오랫동안 봉사했고, 큰 따님 김증규 (미국이름 June) 성도도 고등학교와 UNM재학시절 연합감리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오랫동안 봉사 했었습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현재 엘파소 제일침례교회 교인으로서 성가대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큰따님은 남편 (Dr. Michael DeAntonio, NMSU 교수)과 함께 미국교회에 나가면서 역시 피아노 반주를 돌아가며 하고 있다고 합니다. UNM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GM회사에서 일해 왔던 김증규성도는 현재 Las Cruces 에 있는 Memorial Medical Center의 Lab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순자 집사님의 아드님(김규호)은 덴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따님(김수경)은 버지니아에서 간호사(RN)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기사에서 김순자 집사님 연령이 81세로 소개됐는데 실은 아직 80세라는 코멘트를 김순자 집사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



둘째 따님(김수경)과 사위 (황규범)



김순자 집사님의 큰 사위(마이클 디안토니오)



김순자 집사님의 큰 따님(김증규)

미국의 대통령 선출과정

금년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이다. 지난 2월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를 기점으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고 치열한 공방전이 공화당 후보사이와 민주당 후보사이에 오가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이 경선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이 경선에 고전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뽑는 직접선거가 아니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이어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점도 있다. 광야의 소리 독자 여러분을 위하여 미국의 대통령 선출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고저 한다. 아래의 글은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 (facebook.com/voiceofnm/)에서 소개한 VOA의 동영상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한다.

〈대통령 후보 자격〉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길고도 어려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 후보등록부터 새 대통령 취임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이 되려면 자격요건은 어떤가? 우선 미국 시민으로 출생해야 되며 나이는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14년 이상을 미국에 살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연방선거 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을 해야한다. 부통령의 경우도 동일한 자격요건을 가져야 하는데 단지 대통령 후보와 같은 주 출신이면 출마 할수가 없다.



〈선거자금〉

다음 단계는 선거자금을 모아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선거자금은 아래의 네곳, 즉 개인,정당, 정치활동위원회, 연방정부에서 받을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슈퍼팩(Super PAC : Political Action Committee)을 통해서인데 슈퍼팩은 액수에 제한 받는 개인과는 달리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고 특정인을 위한 TV 정치광고를 내 보낼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 선거

모금을 하기 위해서 후보자는 후원 만찬에 참가도 하고 대규모 유세를 개최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홍보하여 후원을 받기도 한다. 후보는 텔레비전을 통한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의 지지율을 높이고 언론에서 호의적 반응을 얻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

〈경선〉

본격적인 미국 대통령 선출 과정은 각 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으로 시작 된다. 경선은 주 별로 예비선거(Primary)나 당원대회(Caucus:코커스)의 형태로 치른다. 첫 당원대회는 전통적으로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며 첫 예비선거는 뉴햄프셔에서 열린다. 당원대회에서는 공중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공개투표를 거쳐서 후보를 정한다. 당원대회(코커스)를 채택한 주는 알래스카,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오와, 칸사스,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이상의 열개주이다. 그 외의 주에서는 예비선거로 경선을 치루는데 이 방식은 일반 선거 처럼 투표소에서 비밀투표로 치루어 진다.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3월초에 슈퍼화요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여러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루기 때문이다. 각 당의 경선 레이스는 6월7 일 뉴멕시코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5개주의 경선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정당〉

1852년 이후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이었다. 하지만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민주당 (Democratic Party)은 일반적으로 높은 세금과 정부의 더 많은 역할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Republic Party)은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공화당은 별명으로 Grand Old Party, 또는 이를 줄여서 GOP 로 일컬어지고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정치만평가 토머스 네스트가 자신의 정치만평에서 민주당을 당나귀로, 공화당을 코끼리로 표현한 이래 당나귀와 코끼리가 양당의 상징이 되었다. 미국에는 군소 정당도 있다. 자유당, 헌법당, 사회당, 녹색당등이 있다. 당에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으나 큰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양대 정당

후보의 표를 잠식 함으로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전당대회〉

각 주에서 선출된 양 당의 대의원들이 7월 전당 대회에 모여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수는 4764명, 공화당은 2472명으로 이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있을때에는 승자 선언을 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결집하는 형식적인 행사를 치른다. 그렇지만 과반수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없을때에는 경쟁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 대의원들은 다수 지지 후보가 나올때 까지 계속 투표를 반복 하게 된다. 최종 승자는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지명 된다.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7월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며, 공화당 전당대회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7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린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선출된 대선후보는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날이 되는 화요일 (11월8일)에 치뤄지는 대선까지 겨루게 된다.

〈총선거〉

대통령 총선거는 제너럴 엘렉شن(General Election: 일반선거) 또는 포퓰러 엘렉شن(Popular Election: 대중선거)라고 부른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일에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각자 직접 선거를 하지만 직접 대통령을 뽑는것은 아니다. 국민투표는 그 주를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당이 어느 당이 될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가 되는 것이다.

각각의 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따로 따로 주의 선거인단을

임명하고 제너럴 엘렉션 결과를 기다린다. 주 선거인단 수는 그 주의 연방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합계한 수와 동일 하다. 주에서는 제너럴 엘렉션에서 승리한 당이 그 주를 대표하는 공식 정당으로 정하게 되어 승리한 당에서 임명해둔 선거인단이 주를 대표하여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하게 된다.

〈선거인단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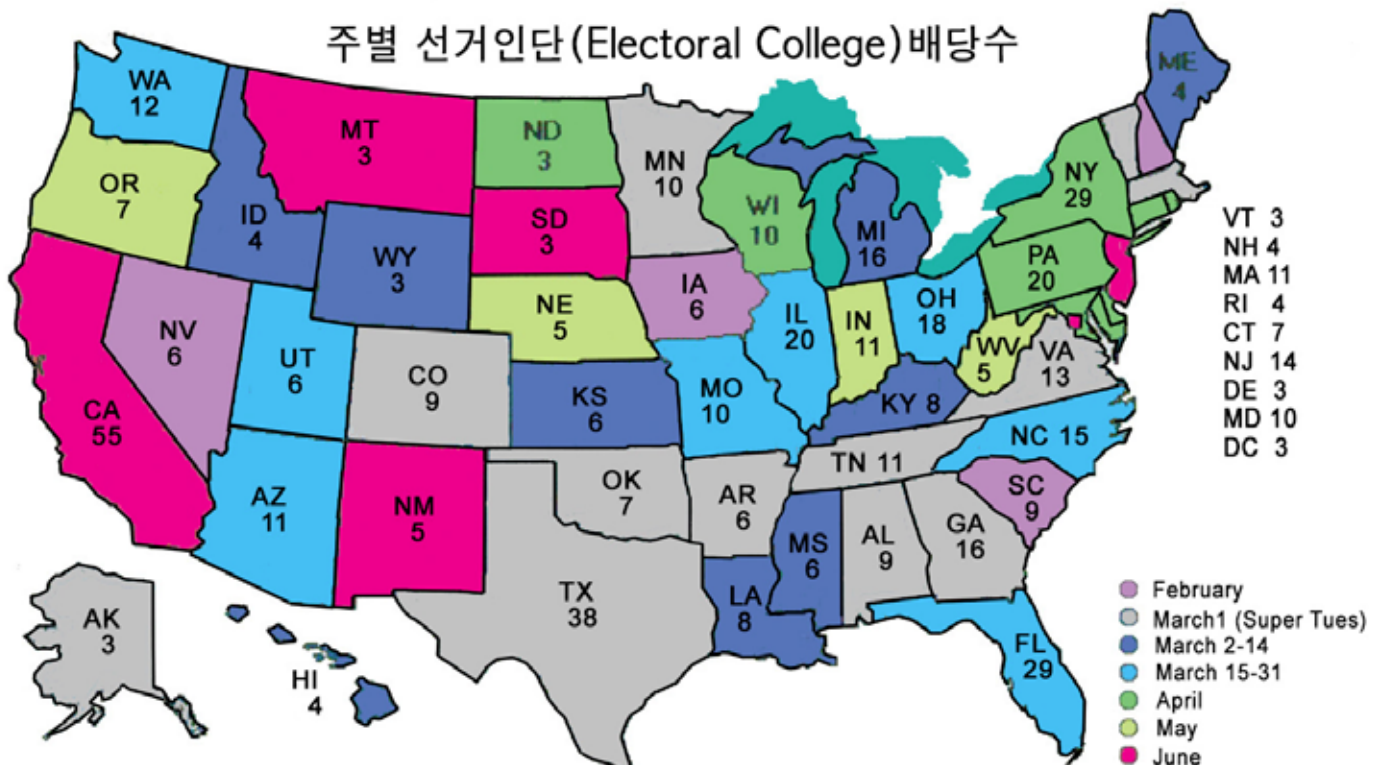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이란 재미있는 제도를 미국의 대선에서 쓰고 있다. 11월8일 투표 결과 총득표 수가 '한 표라도 많은 쪽이 그 주의 선거인단 전부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총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538명으로 배정돼있다. 이는 각 주의 연방하원(435명)과 미국상원(100명) 및 연방의원인 존재하지 않는 워싱턴DC의 선거인단 3명을 합친 숫자다.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55명이고, 텍사스 38명, 뉴욕 29명 순이다. 뉴멕시코는 5명이다. 총 선거인단 중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이 가능하게 된다.

〈선거인단 투표〉

각 주의 선거인단은 공식적인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Vote)라 한다. 12월에 각 주의 해당 주도에서 실시된다. 일반선거에서 결정된 선거인단 수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이 결정 된것이나 다름 없기때문에 선거인단 투표는 요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당선된 제45대 대통령은 2017년 1월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

예비선거와 당원대회 스케줄

주별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배당수





#8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집부)

1-19 영주권 그 이후 (영주권의 관리)



“일단 영주권을 받고 나니 이 운전면허증같이 조그만 플라스틱 하나 얻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더라” 견우의 말에 연오는 공감한다. 영주권자 신분은 반영구적이거나 카드는 보통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이 넘으면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 운전 면허증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나 이민국은 그때 마다 지문날인을 요구 하여 10년동안 살면서 체포되거나 음주 운전을 한적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이며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카드를 받은만큼 해외여행의 기간에 제한이 있다. 만약 1년 이상의 장기해외거주가 필요한 경우 여행허가증을 신청하여 최대 2년까지 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을 보내고 나면 정착이 깊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시민권 취득을 생각하게 된다. 시민권자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영주권을 얻은 뒤 3년후, 취업으로 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신청자격이 생긴다. 한국처럼 귀화를 위해 상당한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영어를 알아 듣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 이때 시험을 같이 보는데 미국의 역사와 정치시스템 등에 대한 100 문제로 이루어진 문제은행에서 10문제를 물어보는데 6개 이상을 맞추면 통과한다. 인터뷰 통과후에는 선서식을 거쳐 영주권을 반납하고 미국시민권을 받게 되며, 이때 비로소 국적이 변경된다.

미국 시민권자는 유권자 등록을 하면 미국의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영주권자일 때와 달리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될 위험이 없어지고, 별다른 조치 없이도 미국을 오랫동안 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직계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있다. “아내가 시민권을 받아서 장인장모님을 초청해 드렸지.” 견우가 회고한다. 김직녀씨의 부모님 김길동씨와 최심청씨는 이렇게 미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전문가의 한마디

영주권의 유지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주권 카드를 잘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영주권을 손에 넣은 분들과 얘기해 보면 이까지 운전면허증 같은 카드 하나를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었나 허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된 영주권은 면허증처럼 소지하고 다니면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민국이 승인편지에 같이 넣어주는 보호종이에 쌓여 장롱속에 고이 간직되기 마련이지요.

그 영주권이 다시 빛을 보는 때는 대개 휴가로 사업방문차로 한국여행을 계획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한다는 의사와 증거를 필요하다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는 CBP국경수비대 심사관에 의해 법적으로 마치 처음 영주권을 받기위해 심사받을 때와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해외에서 거주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다면 심사관은 입국자가 미국에 정말 영주하는 것인지 확인하게 되며, 그 외에도 미국에 영주권을 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유, 예컨대 전과라든지 법규위반 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을 아무조치없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영주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 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란 서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 이 Reentry Permit 을 I-131양식에 신청하여 미국입국시 소지해야 합니다. 보통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동안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는 무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년동안 연속적으로 2번을 받은후 다시 신청하면 1년으로 단축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장기 해외체류가 가능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고용관계서류나 사정을 입증할 서류를 permit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단지 1년 이상 해외체류하는 사실 때문에 당연히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막게 할 뿐, 심사관은 입국자의 영주의사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개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 후 들어온다면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등의 정황증거와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성격상 한국에서의 영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목적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입국허가서 신청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동안 넣기만 하면 바로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후에 승인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 지문날인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신청서 제출 후 지문날인 일정이 잡히기 까지 대개 한달 이상이 걸린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할 때 까지는 미국에 체류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재입국 허가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출국전 여유있게 두달은 먼저 신청서를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변화가 실제로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는 주재원의 경우입니다. 주재기간 이후 가족들의 미국잔류를 위해 영주권을 받은 뒤 기러기 아빠가 되어 한국에 귀임한 주재원의 경우 예전에는 2년마다 잠깐씩 미국에 들어와 여행허가증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매여 휴가를 한달씩 낼 수 없는지라 지금은 미국입국을 더 자주하던지 아니면 많은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카드가 끝났다고 영주권 신분이 종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 자체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14세가 되기 전에 부모에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만 14세 생일 전후로 지문날인을 하고 새로 영주권카드를 받아야 하는 점 또한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과실에 의해 사회적으로 불미스런 결과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 같은 민사문제로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일까? 인류의 역사는 권력에 의해 형벌이 늘 남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근대 형법은 형벌의 근거를, 결과 자체가 아니라, 나쁜 결과를 의도한 의도 즉고의(intent)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는 것으로 줄여 놓았다. 그러므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불미스런 결과에 책임을 부과하는 과실치사죄는 오래된 법학의 흔적인데 독일형법을 수입한 한국형법에는 과실치사죄가 아직 범죄목록에 남아있다. 이에 반해 법학이 늦게 시작된 영미법국가 미국은 형벌은 고의가 있어야만 부과한다는 이념이 반영되어 과실치사죄라는 것이 형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도 최근에는 주류견해에 따라 현재는 과실치사관련범죄를 가능한 폐지하거나 그 형벌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가 하면 미국사회도 한국과는 방향은 반대지만 동일한 고민을 한다. 결과가 치명적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형사적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형법은 이론상 고의를 몇가지로 세분해서 우리개념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를 고의로 편입시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문가의 한마디 물수변의 갈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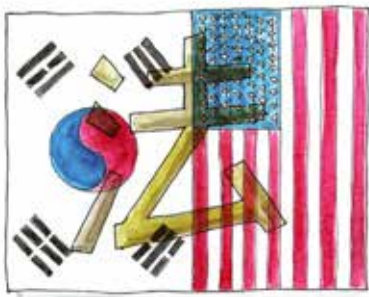
“물수변에 갈거자” 이 암호같은 말은 필자가 한국에서 법대 1학년에 입학했을때 법학원론 첫시간에 교수님이 칠판에 처음으로 적은 말입니다.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한자로 “법(法)”은 물수변에 갈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은 글자 그대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네모진 곳에서는 네모지고 세모진 곳에서는 세모집니다. 법은 마치 물과 같이, 억지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리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지 않다는 교수님의 강의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성서 아모스 5장에는 유명한 “오직 공법을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도.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자문화권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쓰여져 서양문화의 근원이 된 성경에 동양과 똑같은 법의 개념이 나오고 있으니 놀라다면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법학은 서양에서 신학과 함께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문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법학을 공부한 필자는 두나라의 법학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사실 법학이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은 한국과 미국에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큰 차이가 있는데, 요약하자면 한국은 이론법학이요 미국은 실용법학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법을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고 사법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눕니다. 재산법의 대표인 민법도 채권법이니 물권법이니 나누되, 어떠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원칙을 찾아 이를 개념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쓰이는 말과는 크게

1-20미국과 한국의 법 문화 차이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어느정도 자리도 잡고 우리도 이렇게 이역만리서 늘어 가는구나.” 건우의 회고에 연오가 말을 잇는다. “그렇지. 나는 미국에 살면살수록 참 미국과 한국이 다르구나 느낄때가 있더라. 그중에 하나가 법률 문화인것 같아. 몇년 전에 인디애나 퍼듀대학의 한국유학생이 학교서점 건물 앞에서 있다가 부주의 하게 운전하던 트럭에 치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 미국인 운전자는 경찰에 티켓을 받아 얼마후 법원에 나가 약간의 벌금을 낸 것이 끝이었고 사후처리는 보험에 의해 마무리된거지, 장례를 위해 한국에서 건너온 부모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고 분통을 터트렸겠지,”

Park Fine Art, 제7회 인터내셔널 투어 쇼

울드타운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Park Fine Art에서 매년 주최해온 이벤트로 제7회 인터내셔널 투어 쇼를 열게 되었다. 이번 투어쇼는 5월6일 오프닝 전시회로 시작해서 5월 31일 까지 Park Fine Art 갤러리 (주소: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 87104)에서 열린다. 앨버커키 전시회를 마친 후엔 전시된 모든 그림을 독일로 가져가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6월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시를 하게 된다. 전시할 그림을 발송시킨후 박영숙 작가는 네 명의 작가들과 함께 6월 21일 전시를 준비 하기위해 독일로 떠날 계획이다.

다음은 인터내셔널 투어 쇼의 오프닝 전시회에서 박영숙 작가를 만나 일문일답을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지금까지 인터내셔널 투어 쇼를 해온 나라는 어느 나라였는지?
6년전 처음시작은 미국과 한국 인사동에서 하였고 두번째는 미국, 한국, 일본에서 세번째는 미국(앨버커키), 한국, 중국(하얼빈), 이어 서 중국 (베이징), 홍콩, 베이징, 터키(이스탄불)에서 가졌고 작년에는 미국 (앨버커키, LA), 프랑스(파리) 였고 금년은 미국과 독일(프랑크푸르트)로 정했다.

-인터내셔널 투어 쇼를 하게된 동기는?

미국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다보니, 미국에서 전시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친구화가들이 많은 것을 알게되었다. 한국에 있는 화가들에게 여러번 미국 전시 주선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많은 화가들이 미국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하고 그뿐만 아니라 뉴멕시코 이곳



현지작가들도 또한 한국등 외국에서 전시하고 싶어하는 화가들이 너무 많은데 작가들 형편상 독자적으로 외국 전시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래서 생각해 낸것이 미국작가는 한국및 아시아로, 한국작가는 미국 및 유럽에서 전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교량 역할이었다. 그래서 이일을 시작하다보니 어느듯 7번째 인터내셔널 쇼까지 오게 되었다. 지금은 단지 한국, 미국 작가들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 터키, 네델란드 독일등 여러 나라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진정한 국제전시가 된 것 같다.



박영숙 화가

-독일의 큰 도시에 있는 화랑과 계약을 맺어서 쇼를 한다는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자기 화랑을 장기간 외국인에게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화가에게 자리를 내준다는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나를 잘 아는 네델란드 화가 한분이 독일에 있는 화랑을 가진 화가에게 나를 잘 소개를 해주어서 성사되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쇼를 하게 된 것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도와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있다.

-독일에서 전시할 그림은 모두 몇점이 되는지?

오늘 여기 오프닝 전시회에 걸린 그림 모두이다. 46명의 화가의 작품이다. 한사람당 하나로 제한했다. 누구나 자기 그림을 많이 전시하고싶은 마음은 똑 같다. 참가한 화가들에게 공평해야 되기때문에 그림의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씩만 전시하는것으로 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전시는 6월 21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린다.

-전화 (505)764-1900. 홈페이지: www.parkfineart.com ■

다른 개념법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공법의 대표인 형법에서도 범죄라고 미리 정해진 것을 이겨야만 형벌을 가한다는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범죄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개념적으로 일일이 나누어 “행위”를 분석하고 “고의”를 정의합니다. 이 모든 이론에는 늘 통설이 있고 그에 반대하는 소수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심지어 공법과 사법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확히 분리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 내용으로 계약문구를 작성해야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가, 그리고 어떻게 변론해야 소송에서 유리한가입니다. 그리하여 로스쿨 3년동안을 체계적인 이론의 암기없이 끝없이 많은 판례들을 읽어가며 변론능력을 키워가는 것으로 채웁니다.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도 체계가 중요한 한국식 법 문화에서는 법률전체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수정이 쉽지않지만, 실용적인 미국인들은 이전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않으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자동적으로 이전법률을 폐지하는 식입니다.

한국이 따르고 있는 대륙법에서는 미국의 체계적이지 않은 법학을 수준이 낮다고 폄하하고, 미국을 위시한 영미법에서는 문제 해결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대륙법을 고루하다고 비판합니다.

두 법학중 어느쪽이 나은지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두 법학은 점차 가운데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도 판례의 누적이 아닌 점차 대륙법 스타일로 법전을 만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형법도 각주마다 달라 혼란이 많으므로 모범(model)형법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능한 공통으로 채택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미국법 중에서 가장 대륙법과 비슷한 분야 중 하나가 이민법입니다. 미국에서 연방법이 적용되는 분야는 대체로 법률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파산법과 함께 대표적인 연방법인 이민법은 그래서 우선 관련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선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학도 물수변의 걸거자라는 기본정신에 맞게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우리 세상사도 순리에 맞게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락 (Paul Jackson Pollock)

잭슨 폴락의 생애와 작품세계

잭슨 폴락 그는 1912년도 와이오밍주 코디 에서 태어난 화가로 다섯 형제중 막내였던 그는 애리조나 와 캘리포니아에서 성장하였으며, 1928 년 로스앤젤레스의 매뉴얼미술고등학교에서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폴락은 뉴욕 아트스튜던츠리그에서 지상주의 화가 토마스 하트 벤턴을 만나 드로잉과 회화,구성을 배웠다. 그 당시 그의 작품들은 전형적인 미국 서부 주제에 기초한 풍경과 구상 회화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했었던 그가 멕시코의 벽화가인 다비드 시케이스로스의 작업실을 방문하면서 그의 작품세계는 독창적인 전환을 이루게된다. 그곳에서 폴락은 페인트를 붓고 떨어트리는 것이 예술적 기법일 수 있으며, 그림 표면에 에나멜페인트와 모래,유리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1937년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해 만난 정신분석 전문의와의 상담을통해 그의 작품에세계에 또한번 변화를 맞이하는데. 이를통해 폴락은 초현실주의자들의 자동기술법과, 원시미술등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그의 작품은 추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3년 폴락은 첫번째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비평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폴락은 1945년 여성화가 리 크래스너

와 결혼해 롱아일랜드의 이스트햄프턴에 정착해 이전에는 결코 상상할수 없었던 새로운작업을 시도했다.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사방을 돌며 캔버스 위로 물감을 흘리고, 끼얹고, 튀기고, 쏟아부으면서 몸 전체로 그림을 그렸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떨어트린 물감이 층을 쌓으며 화면의 밀도를 높이면서 작가의 다이내믹 한 제작행위를 직접 캔버스에 기록하는 것이었으므로 “액션 페인팅” 이라 불리게되었다.

폴락은 이러한 기법을 통해 1947년부터 1952년까지 미술계에 대변혁을 일으켰으며 미국 미술계의 슈퍼스타로 각광받았다. 그는 1948년 뉴욕의 금세기 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가졌고 1950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에 참여하는등 예술적인 열정을 불태웠다 그러나 열정넘쳤던 그는 알코올중독과



심유진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창조성의 한계에 부딪히며 1956년 만취상태에서의 과속으로 차를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이후 추상표현주의의 선구자였던그는 팝아트 같은 미술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액션페인팅이란 ?

잭슨 폴락의 생애와 작품세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기법의 창시자는 잭슨 폴락이며 이기법은 캔버스에 직접 물감을 뿌리거나 흘리는 자유로우면서도 충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기법으로. 행위를 통한 순간적 우연의 효과를 캔버스위에 표현하길 추구한다. 즉흥적이고 속도감 있는 특성의 표현은 단순한 색채보다는 다채로운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된다. 우연히 생겨난 모양을 이용하는 기법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완성된 작품의 미적 가치보다는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우연을 사용하지 않고 물감을 흘리는 순간마다 영감과 비전에 따라 직관적결정을 내린다” - 잭슨 폴락-

그에대해 잘 몰랐었던 흥미로운 사실들

잭슨 폴락이 피카소를 저주했었던 사실을 알고있는가 동시대에 활동했었지만 그가 액션 페인팅 기법을 창시하기전 피카소가



대세였다. 그의 작품이 웅단폭격처럼 쏟아졌고, 잭슨 폴락은 치명상을 입었다. .. 평면회화부터 빛의 예술까지 모든 장르를 섭렵한 피카소, 폴락에게 새로운 시도는 불가능해 보였다. 도저히 피카소를 넘어설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에 빠져 독한 담배와 술에

칼럼

지혜로운 크리스천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분명하게 두 단어를 구분하여 쓰고 있다. 문제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차이들을 특히 한자를 만든 옛 선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다. 지식(知識)이란 한자에서 知는 “안다, 이해한다, 기억한다”라는 의미이고 識은 “판별하다, 명확히 하다”란 의미이다. 지식이란 알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해서 명확하게 엮어놓은 것을 말한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엮어놓은 이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이런 지식들을 논리적으로 잘 엮는 사람을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반면에 지혜(知慧)는 앞에서 설명한 지식을 가리키는 知와 “슬기롭다, 총명하다”란 慧가 결합된 단어이다. 그런데 여기서 慧란 글자를 자세히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心자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혜에서 知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라면 慧는 가슴으로 깨닫는 것을 말한다. 知는 인간의 지성을 가리킨다면 慧는 인간의 감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성이 있는 사람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냉철하고 분명하다. 반면에 감성이 있는 사람은 포괄적이며 융통성이 있으며 따뜻하고 바르다.

사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빛조차도 너무 밝거나 너무 약해도 인간의 눈은 볼 수가 없다. 소리 또한 너무 세거나 너무 작아도 인간의 귀는 들을 수가 없다. 인간의 논리적인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은 지성이 아니라 감성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했다.

지식적인 사람은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은 지성과 감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지식적인 사람은 지성 한 쪽만 완성된 사람이고 지혜에 사람은 지성과 감성 양쪽이 완성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지혜가 있는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절어 지내기도 했다.

그의 일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에드 해리스가 감독과주연을 맡은 영화<폴락>를 보면 이에대해 잘 나와있다.

다른 한가지 그에대해 흥미롭고도 놀라운점은 그가 요리책을 냈었다는 사실이다. 언제나 담배를 문 골초이며 알코올중독에 특하면 거칠게 시비를 걸었던 싸움꾼이자 플레이보이, 정기적으로 정신 치료까지 받고 있었던 그 위험한 남자가

<19페이지로 계속>

기행문

워싱턴 DC 여행

박광종

KOWIN 뉴멕시코 지회장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워싱턴 DC에 KAERA (Korean-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라는 재미교포와 한국인 교육자들의 연구를 발표하고 나누는 세미나에 발표차 가게 되었다. 벚꽃축제가 한창일때라 너무나 기대를 하고 가게 되었는데,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항상 같을 수 없을 수 깨닫게 하셨다. 막내가 어린 관계로 아내의 세미나에 남편이 휴가를 내고 가족여행을 가게 된 것이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정이었던 것 같다.

5살인 큰아이와 18개월된 작은 아이를 데리고 뉴멕시코에서 워싱턴디씨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좁은 비행기에서 끈고 싶어하는 주하와 흔들리는 기내에서 못 견제 하는 승무원사이에 엄마인 나에겐 너무나 버거운 여행이었다. 휴스턴에서 내려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이 짧은데다 연착까지 된 터라 내리자마자 애들을 데리고 정말 영화의 한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뛰어던 일들, 주하가 링컨기념비앞에 있는 연못으로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뛰어들어갈려고 했던 일들, 한국음식을 먹을려고 2마일이나 되는 길을 무작정 갔던 일들, 대사관에서의 한국인학자를 위한 융숭한 저녁대접, 어떻게 우연찮게 연락이 되서 워싱턴 디시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일하는 사촌언니의 형부와와 만남, 여기저기 택시가 아닌 개인이 몰고 다니는 승용차를 전화앱으로 부르고 워싱턴일대 어디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던

UBER. 대사관이라면 항상 딱딱하고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이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학자들과 미국에서 대학교, 연구소, 교육평가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인학자들을 위해



<19페이지로 계속>

사회 홍보부 주최 요리강습 세미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사회 홍보부는 5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교회 친교실에서 초밥만들기 초급반 세미나를 열었다. 사회 홍보부 부장 이철수 권사가 강의를 맡았다. 회비는 1인당 5불로 재료 구입에 사용했고 모자라는 재료비는 사회 홍보부에서 후원했다. 강사의 도우미로 성은미 집사가 수고했다.

초급반 15명으로 수강생을 제한하려고 했으나 많은 관심으로 22명이 참여했다. 요리 시범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여주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와 TV 스크린을 사용했다. 설명을 들으면서 요리 장면도 함께 볼 수 있었다.



첫 강의의 주제는 캘리포니아 롤 만들기였다. 맛있는 밥짓기 요령, 쌀과 식초, 설탕, 소금의 비율, 오이 써는 방법, 아보카도 썰기, 씨 제거 방법을 실습했다. 준비한 오이, 아보카도, 게맛살을 넣고 캘리포니아 롤 만들기 실습에 들어갔다. 미니(Maki)롤과 핸드롤도 이어서 만들었다. 실습이 끝난 후 함께 만든 음식으로 식사를 했다.

실습재료 외에도 연어와 장어롤도 점심 식사를 위해 준비했다. 실습을 마친 후에 시상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롤을 가장 예쁘게 만든 두사람으로 이태길 목사와 이은영 집사가 선정됐다. 스시맨 복장을 장 잘 차려입은 사람을 인기투표한 결과 성은미 집사, 박광중 집사가 뽑혔다. 참석한 수강생은 밝은 얼굴로 다음 중급반

강좌가 속히 열리길 바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일식 식당에 가야만 맛볼수 있다고 생각했던 캘리포니아 롤을 집에서 직접 손쉽게 만들어 먹을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참석자들 중에는 남성들도 세사람이 참석해 가족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약 두시간 만에 세미나를 마쳤다.

요리강좌를 주최한 이철수 사회홍보부 부장은 “작년 9월에 박광중 집사의 아들 주하 군의 돌잔치 자리에서 스파이시 튜나를 직접 만들어 하객들을 대접했는데 그 자리에서 스시 만들기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것을 계기로 1회 요리강좌를 열었는데 반응이 좋으면 중급반 강좌도 곧 열 계획이다.”라고 요리강좌의 취지를 밝혔다.

요리강좌때 찍은 사진을 앨범으로 광야의 소리와 감리교회 페이스북에

게시물로 올렸는데 24시간내에 204명에게 도달하는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 만든지 5개월 되는 기간 중 최고의 기록을 세웠고 한주일이 된 16일 통계는 300명 도달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 사회 홍보부의 홍보 매체로 폐북의 효율성을 알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의 많은 분이 요리강습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 통계자료를 통해서 입증할수 있었다. ■



17페이지에서 계속 <추상 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락>
부엌에서 빵 굽고, 애플파이와 스파게티를 만들고, 정원을
가꾸고, 집 근처에서 생선을 잡아와 요리를 하던 폴락을 상상할
수 있을까? 더욱이 잭슨 폴락그는 어부들의 요리경연대회인
피셔맨즈페어에 나가 1등을 차지한적도 있었다니 흥미롭지
않을수없었다.

에필로그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우연한 경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들은 오랜기억속에 남기도 합니다. 잭슨 폴락은 자신의
작품에서 우연성을 부인했지만 액션 페인팅 기법은 그 의
의도적인 작업과정에서 피할수없는 연속적인 우연성의 결과와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17페이지에서 계속 <워싱턴 DC 여행>

마련된 저녁식사는 궁중요리전문식당에서 뷔페로 준비되었다.
한국음식을 보면서 어린아이들마냥 좋아하던 학자들. 한국과
미국에서 한국인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연구과제와
교육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던 일과 한국인의 피가
흘러서 더 반가웠던 만남이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추억이 되버린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안에 있는 계획임에 오늘도 나는 겸손해진다. 오늘 하루의
기도속에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갈구하며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기도하며 워싱턴 여행 또한 과거의 한페이지의
추억으로 남기며 글을 마친다.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English Worship § 9:30 am- 10: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신동완 파우스티노 사목회장
장재준 안드레아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505) 831-8812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주택용자 Loan Officer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부동산 Realtors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건축/페인트 Painting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치과 Dental Clinic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공인회계사 CPA	세탁소 Dry Cleaners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태권도 TaeKwonDo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한의사 Acupuncture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월셋집 House for Rent	종교 Church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의류 Clothes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화랑 Gallery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회원/원예 Nursery</p> <p>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p> <hr/> <p>사진관 Photo</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hr/> <p>중재서비스</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hr/> <p>단요가 Dahn Yoga</p> <p>알버커키 505-797-2211 커티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트 505-286-3535 www.dahnyoga.com</p>	<p>종교 Church</p> <p>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505)-269-0691</p> <hr/> <p>병원 Clinic</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hr/>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hr/>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hr/> <p>건강식품 Health Food</p> <p>인성내출혈: Los Alamos (505-662-9681)</p> <hr/> <p>종교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p> <hr/> <p>리오란초 Rio Rancho</p> <hr/>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hr/>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p>	<p>버나리요/벨렌/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p> <hr/>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p> <hr/> <p>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p> <hr/> <p>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p> <hr/> <p>산타페 Santa Fe</p> <hr/> <p>변호사 Law Firm</p> <p>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hr/>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hr/>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hr/> <p>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hr/> <p>종교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p>	<p>리커스토어 Liquors</p> <hr/> <p>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p> <hr/> <p>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p> <hr/> <p>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p> <hr/> <p>클로비스 Clovis</p> <hr/> <p>종교 Church</p> <hr/> <p>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hr/> <p>백화점 Mart</p> <p>T-Mart</p>	<p>식당 Restaurant</p>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hr/> <p>식품 Korean Grocery</p> <p>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hr/> <p>화밍톤 Farmington</p> <hr/> <p>종교 Church</p> <p>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p> <hr/> <p>상점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	---	---	---	---

편집후기

이번호는 5월초에 있었던 한인회와 본 교회 사회 봉사부 행사등을 포함한 몇가지 기사를 포함 시키기 위해서 2주 가량 늦게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뉴스거리는 많은데 지면이 부족한 5/6월호가 되었습니다. 지난 달은 출판 재정에 관련되는 광고 담당 신옥주 권사님이 바쁜 달 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일년을 위해 후원금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광고주 여러분께 그리고 광고와는 관계없이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조규자 전 한인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해동안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광야의 소리를 발행해 나갈수 있게 된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이경화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6년 5/6월호

발행일 : 2016. 5.19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광야의 소리>는 페이스북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보실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voiceofnm/ 웹사이트: voiceofnm.kumcabq.com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C & M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H&R BLOCK

NAMI ROYBAL
 한국성명: 류정남
 TAX SPECIALIST 2



8201 Golf Course Rd NW
 Ste F-2
 Albuquerque, NM 87120
 Office: 505.792.0997
 Cell: 505.220.9372
 Fax: 505.792.7871
nami.roybal@tax.hrblock.com

AVAILABLE
 YEAR-ROUND
 BY APPOINTMENT
HRBLOCK.COM

**세금보고를
 해 드립니다**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 Sat
 4:00-9:00 Sun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관동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육 / 양장피 잡채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uerque, NM 87112 (505)292-8222

